

2023. 10. 1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정보통신보안 담당관	김 완 집	2133-2860
정보통신기획팀장	변 순 권	2133-2862
관련 누리집	https://news.seoul.go.kr/gov/lovepc-request-info	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서울시, IBK투자증권으로부터 '사랑의 PC' 500대 기증받아...디지털 정보격차 해소↑

- 11.(수) 서울시 서소문청사서 기부전달식...IBK투자증권, 업무용 중고 PC 500대 지정기탁
- 기증물품 서울시에서 부품교체 등 정비 후,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보급 예정
- 시, “서울시 사랑의PC 사업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하는 약자 동행에 함께 해나갈 것”

- 서울시가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업무용 중고 PC를 기증받아, 재정비한 뒤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한다.
- 서울시는 디지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‘사랑의PC 기부전달식’을 11일 (수)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스마트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‘사랑의PC’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 및 산하기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PC와 자치구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중고PC를 인터넷 검색,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해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이다.

- 이번 기부전달식에서 IBK투자증권은 ‘서울시 사랑의PC 사업’에 동참하기 위해 자사에서 사용했던 중고 PC 500대를 서울시에 전달한다.
 - 전달식에는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, 심완보 IBK투자증권 DT부문장(상무) 등이 참석한다.
 -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 계열사로, 자본시장 내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분야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이번 기부 전달식을 계기로 서울시와 ESG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- 이날 심완보 IBK투자증권 DT부문장(상무)는 “디지털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사의 PC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서울시는 사랑의PC 신청과 보급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. 희망자는 시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에서 ‘서울시 사랑의PC’를 검색해 나온 신청창구 (news.seoul.go.kr/gov/lovepc-request-info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.
 - 보급은 신청순으로 진행된다. 다만,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랑의PC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제외) ③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신청 증빙서류이다.

대 상		증 거 서 류 (제 출 서 류)	연 번
공통		- 신청서	①
		- 발급일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(생년월일)	②
		-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	③
개인	기초생활수급자	- 수급자 증명서	④
	차상위계층	- 차상위계층 확인서	
	장애인	- 장애인증명서	
	국가유공자	- 국가유공자 확인서	
	결혼이민자	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	
	한부모가족	- 한부모가족 증명서	
	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	
	자립준비청년	- 보호종료아동확인서	
보호연장아동	- 보호연장아동확인서		
비영리 사회복지법인	- 고유번호증		

□ 한편,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가치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수집대상 기관, 지원대상 등을 넓히며, 사랑의PC 사업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○ 사랑의PC 수집대상 기관을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, 자치구까지 확대했으며, 지정기탁을 통해 민간단체에서 기부받은 PC도 활용하고 있다. 지원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까지로 확대했다.

○ 시는 사랑의PC 사업에서 민간 기부를 통해 노트북을 지원하는 첫 사례로 지난 7월 (주)하바스코리아를 통해 전달받은 초경량노트북 38대, 일체형 PC 5대 등 총 43대를 물품 기탁자인 (주)하바스코리아의 뜻에 따라 서울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.

□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“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, ‘사랑의PC’ 사업에 동참해주신 IBK투자증권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”며, “서울시 또한 사랑의PC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동행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1 기부전달식 사진



왼쪽부터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, IBK투자증권(주) DT부문장 심완보